

稀罕한 發明 「고구마時計」

發明家 목관호씨... 향수時計도 完成단계

編輯室

革新的 發明品으로 評價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時計의 모형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時計가 發明되었다. 아니 시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원까지도 송두리째 바뀌었으니 가히 革新的인 發明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時計란 손으로 태양을 감아주거나 건전지(수은전지)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시계바늘이 돌아가거나 숫자판이 바뀐다고 생각해 왔다.

『이 새로운 時計는 태양도 건전지도 영원히 필요없고, 그 대신에 고구마나 사과·양파·돼지감자·벚꽃·감자 혹은 화분의 꽃가지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金屬製品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대신 꽃잎이와도 같은 美觀을 결들임으로써 실내裝飾品の 效果까지도 가져오게 되었지요.』

이 희한한 發明品을 考案한

주인공 목관호씨의 說明이다.

목씨가 이 時計를 처음 구상한 것은 지난 82년 10월. 목씨는 時計나 TV등 전자기구가 점차 적은 電壓으로도 作動되는 것들이 開發되므로 植物 속에 있는 에너지를 잘 開發하면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生命體의 電壓利用

사실, 살아있는 거의 모든 生命體, 특히 植物에는 약 1.2V 정도의 전압이 흐른다. 현재 전자손목시계에 內藏된 수은전지의 전압은 1.5V정도. 그렇다면 1.5V를 필요로 하는 전자시계가 1.2V의 電壓으로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목씨에게도 가장 어려운 점이였다.

『만약 그의 實驗이 成功한다면, 아니 1.2V로 時計가 움직여 준다면, 비싼 外貨를 들여가며 輸入해오는 수은전지도 필요없을 테고, 나아가서는 외화절약은 물론 海外로 輸出

하여 우리 기술의 자랑과 막대한 外貨를 벌어들일 수도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다 쓰고난 수은전지를 토양 속에 매몰시킬 때 토양의 오염도를 생각하면 공해 문제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이른 목씨는 친구 셋과 함께 자기집 지하실에 차려놓은 實驗室에서 研究에 몰두했다. 그러나 체중만 10kg씩 빠졌을 뿐 거의 1年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력했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어쩔때 實驗機具를 집어던져 박살이 나기도 했다. 참으로 그들에게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갈 뿐이었다.

世界最初の 금속막대 開發

그러던 어느 날 美國에서 開한 “열전나판(electric device)”이란 金屬板에서 결정적인 묘안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랜 노력과 고생 끝에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電氣를 일으

- …… 본회가主催한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가 열리고 있는 서울 경부고……○
- ……속터미널 하차장에서는 「고구마 時計」라는 稀罕한 發明品이 3月 15日부……○
- ……터 4月 14日까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展示會는 오는 6月 14日……○
- ……까지 열림) ……○
- …… 마땅히 건전지의 兩極에 연결되어있어야할 電線이 고구마·사과·양파……○
- ……감자등에 연결되어 있는데도 時計의 숫자판은 찰각 찰각 잘도 바뀐다. ……○
- ……그것도 정확한 時刻를 가르키면서. ……○
- …… 본회가 主管한 지난 2月 27日의 KBS 1TV 100分企劃 生放送 「당신도……○
- ……發明王」에도 出品되어 TV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고구마時計」의……○
- ……發明家 목관호씨와 자리를 같이하고 「고구마時計」의 수수께끼를 풀어보……○
- ……았다. 編輯者 註……○

키는 이 金屬板을 변형시켜 世界最初의 금속막대를 開發하는데 成功했다.

따라서 ‘고구마 時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구마나 감자 등에 꽂아 연결하는 금속막대한 기존 電子時計에 약간의 변형을 한 부분이다.

『이 금속막대를 모든 植物과 動物은 물론 사람 신체의 어느 부분에 연결해도 척척 시계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 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목씨는 많은 사람들이 實驗을 갖 시작했을 땐 뜯구름 잡는 일이라느니, 장사하다가 돌았다느니 등 손가락질을 할 때의 창피함도 아련한 追憶으로 간직될 것 같았고, 그 동안 수입 악기상을 경영하며 벌었던 돈을 몽땅 實驗費用으로 날려버린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했다. 더군다나 비싼 非金屬과 金屬을 舍金하면서 촉매를 집어 넣었을 때, 염소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던 아픈 기억도 이제

는 불꽃처럼 튀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했다.

향수時計도 完成단계

『이제 모든 일에 자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原理라면 새로운 金屬을 모든 電子製品에 적용시켜 앞으로는 전자계산기, 라디오, T.V등에도 電氣가 필요없게 될 날도 멀지 않았지요.』

목씨는 오즈음 굉장한 希望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구마時計’ 하나만으로도 年間 2억원의 外貨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가지 發明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향수時計’ ‘맹물로 움직이는 時計’ ‘모터없이 달리는 自動車’ 등 제2, 제3의 發明을 위한 의욕은 충천해 있다. 『發明이 아니라 發見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찾아볼 수 있는 生活科學을 한가지 알아냈다고 하는 게 옳은 表現

이겠지요. 진리라는 것은 항상 가까운데 있더군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될 뿐이지요.』

‘향수時計’도 ‘고구마 時計’와 비슷한 전기분해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거의 完成段階에 와 있다. 生物體의 에너지가 전류의 흐름을 일으키고 화학분해되는 과정에서 향내를 내게 했단다.

3年마다 1個씩 發明品 냐터

『이제 앞으로 3年마다 한개씩 發明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욕심이 지나친 게 아니라 꿈이 많을 뿐이라는 그는 저녁 식사를 걸러가면서 地下 研究室에서 문혔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번째의 봄이 찾아왔다고 했다.

목씨의 봄은 항상 싱싱하고 希望에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有益을 주려는 의욕에 가득차 있다. ☺